**문법 교육의 내용**

**1.문법 교수의 영역**

외국인 학습자를 교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문법 기술은 국어학의 문법 연구에 서 출발한다고 본다. 하지만 문어 중심의 기존 문장 문법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어휘 문법과 담화 문법 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 담화 <문법> 어휘
* 담화문법 문장문법 어휘문법

먼저 어휘 문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의사소통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언어 사용에 관한 체계적 지식（언어 지식）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지식이 많을수록 언어의 정밀성은 필 요 없는 셈이다. 아래와 같이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어 상황에서는 눈짓이나 몸짓으로 중분하고 간단한 대화에서는 어 휘로만 중분 히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가 공간과 시간을 달리하게 되는 문어 상 황에서는 자연히 상황을 설명하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이때 필수적으로 문법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논증이나 반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는 더 욱 더 문법의 도움을 요구하게 된다.

* 몸짓 구어 문어 고급 글쓰기
* （비언어적 표현） 一 （어휘적 표현+기본적 문법 표현）--（어휘적 표현十복잡한문법 표현）

이런 틀로 본다면 초급에서는 기본적 문법 표현과 어휘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 어휘적 접근이 강조되며, 고급에 이를수록 정확한 문법 표현과 다양한 어휘 표현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법을 어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되 어 왔다. 실제로 어휘와 문법의 얼개는 서로 얽혀 있으므로 문법이 독립적이거나 자족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Halliday(1978)는 “결국 어휘 체계는 문법에 의해서 정의된 일련의 틈새에 딱 들어 맞게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어휘는 간단히 가장 미묘한 문법이고……, 대상 들이 더욱더 특정적이 되면 될수록 문법 구조의 선택보다는 더욱더 어휘 항목의 선 택에 의해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생성문법학자들도 어휘와 문법의 상호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Brown (1984)도 어휘와 문법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즉, 문법론의 열 쇠를 어휘에서 찾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존대법이나 피동 •사동 등의 문법 범주는 많은 경우 문법에 의존하는 것만큼 어휘에도 의존하며, 학습자의 오 류 중 많은 부분은 문법 규칙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개별 어휘의 예외적 혹은 관습 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로 초급에 서 문법의 규칙을 가르친다면 중급이나 고급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규칙의 예외 를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담화 문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기존의 교재에서 다루어 온 문법 형 태는 문장 단위의 문법으로 한정되었으며, 문법 형태에 대한 의미와 예문 제시에 그쳤다.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담화 문법의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즉, 대화 상대자나 맥락에 따른 문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 다. 또한 문법의 제시 방법도, 기존의 논의가 주로 목표 문법의 형태와 의미, 통 사적 제약의 제시에 그쳤다면, 담화 층위의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에서 의 기능과 화용적인 제약, 맥락에 따른 적절한 문법 형태의 선택 능력까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언어의 실제성과 연결된다.

담화 기반 접근법 (discourse-based approaches to grammar instruction) 이란 담화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실제 언어의 자료와 용법, 의미의 구조를 중시하는 것 이다. 이는 언어 구조와 문맥적 사용을 중시하고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구어, 문어 자료를 살피고 담화 구조, 담화 구성 요소, 사용역 (register), 담화적 변이 등을 연구한다. 문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연결망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동기를 지닌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문법 이 인간 생 활에서 서로 표현하고 싶은 요구가 생겼을 때 이를 표현할 방법을 사람들 사이에 서 약속한 것이라면 문법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화용적 기능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2. 문형과 의사소통 기능**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형이란 ‘문법 형태’ 에서 준말로 짐작되는데, > ‘문형’ 에 대 한 각 교재의 용어는 다양하다. 일부 교재에서는 ‘문형’으로, 또 다른 교재들에서 는 ‘문법 및 표현’으로 표시한다. 그 외에도 ‘form pattern, expression, expres¬sion pattern, form pattern expression’ 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김정은(2001)은 문 형이 ‘문장 구조의 유형’ 을 의미하므로 ‘관용 구문’ 이 적당하다고 제안하나 이 역 시 기존의 어휘적 관용 표현과 혼동될 수 있다.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아래와 같 이 다양하다.

**통어적 구문 :** 백봉자(1999), 통어적 구성 : 방성원(2004), 통어적 문법소 : 노지니 (2003), 표현 항목 : 이 미 혜 (2002), 표현 : 이효정 (2003), 관용 표현 : 이회자 • 이종희 (1999), 관용 구문 : 김정은 • 이소영(2001),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Anderson(1985), Rob Bastone(2003), ready-made elements and chunks : Skehan(1992), semi-preconstructed phrase ： Sinclair(1998), Dave Willis(2003) ： 네 가'지 (polywords/ frames/ sentences & sentence stems/ patterns)로 나눔, Nattinger

**출처**

강현화, & 이미혜. (2011). 한국어교육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